

## 관세청장, 대미 반도체 수출업체와 간담회 개최

- 한미 관세청장 회의를 통한 대미 수출기업 애로 해소 의지 밝혀

- 이명구 관세청장은 9월 11일(목) 경기도 평택에 소재한 (주)삼성전자 평택 캠퍼스를 방문하여 반도체 생산 현장을 살펴본 후, 반도체 업계의 대미 수출 지원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.
  - 삼성전자 측은 대미 수출물품의 경우 국가별로 차등 세율이 적용될 수 있어 고세율 판정을 받지 않도록 비특혜원산지 관리에 힘쓰고 있으나, 미국의 불명확한 과세 기준으로 인해 실무상 어려움이 있다고 설명했다.
    - 이에 따라 한-미 관세당국 간 논의를 통해 우리 수출기업의 어려움이 전달되기를 희망하며 관세청의 전문적인 지원을 요청하였다.
    - 또한, 신속한 신제품 개발을 위해 외국 원재료를 반입 즉시 연구개발에 투입할 수 있도록 연구소 등도 보세공장\* 특허 대상으로 지정해 줄 것을 건의하였다.
- \* 외국 원재료를 관세 등을 납부하지 않은 상태에서 제조가공하거나 검사검증 작업을 할 수 있는 곳
- 이명구 청장은 “오는 11월 미 관세국경보호청(CBP)과 제18차 한미 관세청장 회의를 통해 미국 관세정책 관련 정보공유를 강화하고, 통관 애로 해소를 위한 전담 협력 채널 구축을 제안할 예정”이라고 설명하며,
  - 우리 기업이 수출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보세공장 제도 관련 건의사항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.

|       |                |     |     |                    |
|-------|----------------|-----|-----|--------------------|
| 담당 부서 | 관세청<br>국제협력총괄과 | 책임자 | 과 장 | 임주연 (042-481-3210) |
|       |                | 담당자 | 사무관 | 김수미 (042-481-3211) |